

쿠웨이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7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

I . 일반개황

면적	18천 km ²	G D P	1,207억 달러 (2015년)
인구	411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29,363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입헌군주제	통화단위	Kuwait Dinar (LD)
대외정책	친서방 실리외교	환율(달러당)	0.3009 (2015년 평균)

- 쿠웨이트만 남쪽 연안에 경상북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,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,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.
- 쿠웨이트인이 30%에 불과하고 그 외 아시아인과 아랍인이 대다수를 차지함.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이나, 외국인을 위한 카톨릭 및 개신교를 허용하고, 여성의 사회활동이 일부 보장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임.
- 인구 약 400만 명, 국토면적 1.8만 km²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, 풍부한 원유(세계 7위) 및 천연가스(세계 18위)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. 다만,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.
-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, 1990년 이라크의 침입이 있었으나,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물리침. 2006년 즉위한 Emir Sabah al Ahmad al Jabir al Sabah 국왕이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으나, 고령으로 왕위 승계와 관련한 분파 간 갈등이 존재함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 표 1 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 ^f
경제성장률	7.7	1.0	0.0	0.9	2.4
소비자물가상승률	3.2	2.7	2.9	3.4	3.4
재정수지 / GDP	33.3	34.0	26.6	1.2	-13.4

자료: IMF

□ 국제유가 하락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저성장세 지속 전망

- 2012년까지 고유가에 힘입어 7%대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, 이후 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원유 생산·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13년 1.0%, 2014년 제로성장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음.

- 석유 부문 성장률 추이(%): 10.3('12) → -0.8('13) → -1.9('14) → -1.4('15)

- 2015년 경제성장률은 석유 부문의 마이너스(-)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부문의 호조로 0.9%로 소폭 상승하였으며, 2016년에는 공공투자 확대,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.4%까지 회복될 전망이다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 추세이나 안정적인 수준 유지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추세에 힘입어 3%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-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시행한 디젤, 등유, 가솔린 등 연료 보조금 감축 정책에 따라 전년(2.9%) 대비 소폭 상승한 3.4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전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.

※ 2014년 기준 쿠웨이트의 각종 보조금 지출액은 재정지출 총액의 2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원유수출 수입(收入)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예상

- 쿠웨이트의 재정은 원유수출 수입(收入)이 세수의 약 80%를 차지하는 구조로, 2014년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에 힘입어 GDP 대비 30% 내외의 막대한 재정수지 흑자를 지속하였음.
- 그러나,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1.2%로 대폭 위축되었음. 2016년에는 각종 보조금 감축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본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13.2%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석유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

- 석유 부문이 GDP의 50%, 재정수입의 80%, 총수출의 90%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동함.
- 제조업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타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함. 이에 생필품, 내구재, 자본재 등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 - 한편, 1970년대 말까지 걸프 지역의 금융 중심지로 호황을 누렸으나 1981년 이란-이라크 전쟁, 1990년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규모와 위상이 크게 축소되고 점차 두바이가 금융·무역 중심지로 부각됨.

□ 높은 외국인 비율에 따른 소비계층 양극화

- 약 400만 명의 인구 중 자국민의 비중은 30%에 불과하며, 70%는 인도, 이집트 등 출신의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.
- 또한, 자국민은 대부분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민간 부문에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여 민간 부문이 대체로 취약하며, 소비시장 역시 양분화되어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 보유

- 한반도 면적의 1/12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5년 기준 1,015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(세계 7위)을 보유하고 있는 OPEC 회원국으로, 일일 원유 생산량은 310만 배럴에 달함.
 - 주요 유전은 Burgan 유전을 비롯해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, 최근 Raudhatain, Sabriya 등 북부 지역에서도 신규 유전 개발이 추진 중임.
- 아울러, 2005년 9,630억 m³ 규모의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이후 연간 150억 m³ 이상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, 2015년 기준 매장량은 1.8조 m³ (세계 18위)인 것으로 파악됨.

다. 정책성과

□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불분명

- 정부는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(2010/11년~2013/14년)에 이어 2015년 1월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(2014/15년~2019/20년)을 확정 발표하였음.
 -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는 1,0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·항만, 의료·교육 등 경제·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음.
 - 그러나, 대형 인프라 건설을 위한 메가프로젝트(mega-project)의 추진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.
- 이에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1,5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정유공장 및 발전소 건설, 북부 지역 개발 등 주요 전략사업과 민간경제 활성화, 산업다각화 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임.
 - 금번 개발계획에서는 재정부담 완화 및 민간경제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 방식(PPP)을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나, PPP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임.

- 또한 Al Zour 정유공장 건설(160억 달러), Clean Fuel Project(120억 달러) 등 석유화학 부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, 산업다각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.

□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추진

- 2016년 4월 정부는 경제개혁안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쿠웨이트 증권거래소(KSE)의 민영화를 발표하였으며, 금년 10월 IPO를 통해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임.
- KSE 지분 중 일반 국민에게 50%, 외국기업들에게 44%가 할당되었으며, 정부는 6%만 소유함.
- 이는 쿠웨이트의 첫 공공기관 민영화로 증권거래소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,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3. 대외거래

< 표 2 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
경 상 수 지	78,711	69,491	53,802	13,890	-1,073
경 상 수 지 / G D P	45.2	39.5	31.3	11.5	-1.0
상 품 수 지	95,410	90,196	75,979	29,434	16,044
수 출	119,654	115,858	103,361	57,503	44,223
수 입	24,244	25,662	27,382	28,069	28,179
외 환 보 유 액	25,964	26,348	26,291	22,010	20,774
총 외 채 잔 액	37,462	34,521	38,742	42,183	44,832
총 외 채 잔 액 / GDP	21.5	19.6	22.5	34.7	35.8
D S R	4.6	3.8	4.2	6.4	6.5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국제유가 하락세로 2016년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

- 쿠웨이트는 2011~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와 GDP 대비 30~40%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음.
- 경상수지는 총수출의 90%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, 서비스·소득·경상이전수지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.
- 그러나, 2015년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이 약 50%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전년(31.3%) 대비 1/3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, 2016년에는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됨.

□ 외환보유액은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 유지

-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2013년 263억 달러에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.
- 아울러, 쿠웨이트투자청(KIA)이 세계 7위 규모(5,920억 달러)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외자산은 풍부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

-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오일머니 유입 감소에 따라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대외차입이 증가한 결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, 2015년 기준 34.7%를 기록하였음.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.S.R.)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6.4%를 기록하였으나,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임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왕실 내부에서 권력 승계와 관련된 갈등 고조

- Al-Sabah 국왕이 2006년부터 집권 중이나 현재 86세의 고령이며, 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왕위계승서열 1위인 Nawaf al Ahmed 왕세제도 78세임. 따라서 차기 왕위계승자 자리를 놓고 왕실 내부에 갈등이 존재함.
- 현재 Nasser Mohammed al-Ahmed 왕자를 비롯한 몇몇 왕자들이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해 왕실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특히, 2016년 5월 국왕의 조카인 al-Fahad al-Sabah를 비롯한 왕실 인사 3명이 국왕 모독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 등 왕실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.

□ 야당의 총선 보이콧 철회로 정부-의회간 갈등 다소 완화

- 2012년 정부가 선거제도를 1인 4표에서 1인 1표로 개정하자 이에 반발한 이슬람주의 야권 세력이 2013년 총선 보이콧과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음.
 - ※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 유일하게 국회가 존재하는 나라로, 정당 결성은 금지되어 있으나 각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5개 이상 존재함.
- 그러나, 이후 4년 간 보이콧 지속에 따른 야권 세력의 결집 약화로 2016년 5월 이슬람헌정운동(ICM)이 보이콧을 철회함에 따라 정부-의회 간 갈등이 다소 완화되었음.
 - 다만, 보이콧 철회로 2017년 총선에서는 야권 의원 당선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각종 개혁 및 정책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□ 집회·시위의 자유 제한, 언론 탄압 등 긴장요인 상존

- 쿠웨이트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 집회·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.
- 아울러, 2015년 1월 정부 비판적인 일간지 al-Watan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, 2016년 1월에는 전자범죄법(cyber-crimes law)을 제정하여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.
- 국제인권단체 Freedom House의 ‘2016 언론자유보고서’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언론자유도는 199개국 중 130위로 부분적 자유국(partly free)에 해당함.

□ 시아파에 대한 차별로 종파간 갈등 요소 잠재

- 쿠웨이트는 왕실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약 60%가 수니파이며, 시아파는 약 25%를 차지함. 시아파 주민들은 수니파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편임.
- 쿠웨이트 내 종파간 갈등은 이라크, 바레인 등 인접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이나, 시아파 중심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억압이 지속될 경우 잠재된 불만이 표출되어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과 갈등의 양면적 관계 유지

- 쿠웨이트는 GCC(걸프협력위원회) 회원국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에 대해,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회원국들과 함께 강경한 대응으로 안보 측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.
- 2016년 1월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공관 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단교를 선언하자, 쿠웨이트 역시 이란 주재 자국 대사관을 소환하는 강경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.

- 반면 정치적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지대*(Neutral Zone)에서의 원유 공동생산 등 경제적 이슈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* 사우디아라비아-쿠웨이트 국경에 위치한 면적 5,770km²의 지역으로, 원유 매장량은 약 50억 배럴, 일일 원유생산량은 약 52만 배럴임. 중립지대의 모든 유전은 양국 국영회사가 50:50의 지분으로 합작 설립한 Al-Khafji Joint Operations(KJO)에 의해 운영되며, 생산되는 원유는 양국이 절반씩 나누어 갖고 있음.

< 중립지대(녹색 빗금 부분) >



- 일례로 201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중립지대 Khafji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을 중단하자,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함.
- 또한, 2015년 5월에는 중립지대 Wafra 유전 공동개발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국제적 중재를 요청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 수준은 안정적이나 외채구조가 다소 취약
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D.S.R.은 각각 34.7%, 6.4%로 양호한 수준임. 다만,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75% 이상을 차지하여 외채구조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.

2. 국제시장평가

<표 4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B1 (2016. 7)	B1 (2015. 3)
OECD	2등급 (2016. 1)	2등급 (2015. 1)
Moody's	Aa2 (2016. 5)	Aa2 (2014. 3)
Fitch	AA (2015.12)	AA (2015. 6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 : 1979년 6월 11일 (북한과는 2001년 4월 4일 수교)
- 주요협정 : 항공협정('82), 문화협정('83), 통상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('84), 이중과세방지협약('00), 경제기술협력협정('06),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('07)
- 해외직접투자 현황 : 2016년 3월말 기준 23건, 2,447만 달러(누계기준)
- 교역규모

<표 5> 한·쿠웨이트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5	주요 품목
수 출	1,133	1,976	925	483	자동차, 정전기기, 전선, 철강판
수 입	18,725	16,892	8,973	2,422	원유, 석유제품, LPG, 동(銅)제품
교역규모	19,858	18,868	9,898	2,905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우리나라는 쿠웨이트 제1위 수출대상국
 - 우리나라는 쿠웨이트의 제1위 수출국으로 2015년 기준 쿠웨이트 총수출의 14.0%를 차지하였음. 한편 쿠웨이트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3위 수입국임.

V. 종합 의견

- 쿠웨이트는 자원부국으로 원유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, 최근 세계 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음. 2016년 경제 성장률은 공공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2.4%로 전년(0.9%)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- 원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재정·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였으나,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라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, 2016년에는 재정·경상수지 모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.
- 국왕과 왕세제의 고령에 따라 차기 왕위계승권을 놓고 왕실 내부의 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, 집회·시위의 자유 제한, 언론 탄압 등 강경 정책으로 인해 정치·사회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.
- 2015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D.S.R.은 각각 34.7%, 6.4%로 양호한 수준임. 또한 세계 7위 규모의 풍부한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.

조사역 조재동(☎02-6255-5727)
E-mail : jjd8948@koreaexim.go.kr